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3회)

전도관 제8편

이만제단 시대 제5부

차례

이만제단 시대 5부
一. 승리자란?
二. 승리자는 조희성님
三. 승리자, 동방의인, 감람나무는 같은 한 분이다

밀실에서의 대표적 수도과정

A. 관심의 음란죄

밀실에서의 수도 생활은 매우 고달픈 생활이었다. 매일 매일 중노동을 하다가 문득 문득 가족들의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관심의 음란죄다. 잠시 가족을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생각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관심의 음란죄로 죽을죄이다.

B. 뒤돌아보는 음란죄

하루는 밀실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먼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옛 제자와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 제자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해와이긴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 뒤돌아 보는 음란죄 지은 놈의 새끼!"라고 호통을 치면서 주먹으로 조희성님을 개 패 듯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힌 일이었다.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죽을죄요, 음란죄가 되는 것이다.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는 것이다.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외에는 다 음란죄가 된다는 것이다. 생각조차 마음대로 하지못하는 수도 생활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수도생활이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이 과정을 조희성님은 거뜬히 완성하시어 통과하셨다.

C. 이유변명죄

하루는 밀실에서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해와이긴자가 조희성님에게 "전기세 내라고 20만원 줬더니 전기세는 안 내고 도둑질한 도둑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둑놈이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이 도둑놈의 새끼야! 전기세 내라고 준 20만원 가져와!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참으로 억울했다. "저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라고 한 마디만 하면 그 순간 "이유 변명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성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라고 하시면 도둑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신이요, 대마귀이므로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D. 우쭐하는 음란죄

전기세 20만원 훔친 도둑의 누명을 쓴 조희성님은 30여 명이 모인 밀실에서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나는 도둑놈이 아닌데…"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을 하면 죽을죄가 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인 사망의 신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희성님은 "하나님, 이러한 시험을 하시어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다. 그와 같이 마음을 먹는 순간 해와 이긴자의 벽력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와 같은 호통은 "네가 잘 이겼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때에 잘 이겼다고 우쭐하면서 나가면 "우쭐하는 음란죄"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성님은 물러나오면서 정말 도둑놈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만 통과가 되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밀실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조희성님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차갑게 대하는 기가 막힌 고통도 참아 나가야만 했다.

E. 맡기는 생활

처음 밀실에 들어가서 남다른 각오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 물론 해와이긴자도 열심히 기도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해와이긴자는 "하나도 기도를 안 했군" 하시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해와이긴자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다. 해서 다음날 밤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역시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하느냐?"고 야단을 하시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고민에 빠졌다. '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했다고 야단을 하시는 것일까?' 고민 끝에 정각(正覺)을 얻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주체의식은 선악과를 먹은 원죄인 마귀마음임을 깨달은 것이다. 마귀 마음인 나라는 자아(自我)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다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해와이긴자께서 "이제야 조금 기도했구나"라고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 주소서 하는 마음이라야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의심 없는 100%의 순종이 온전히 맡기는 생활인 것이다.

F. 좋아하는 음란죄

1980년 4월 경에 "1차로 네가 이겼다"로 판정이 나면서 전도하러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처음 나가서 전도한 결과 만나는 사람마다 불성령을 받고 불치의 병자가 나은 것이다. 그리고 소래면에 있는 은광 장로교회에서 전도한 결과 그곳 유장로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향취를 강하게 맡으면서 소변으로 피를 쏟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는 개종을 하여 장로교 간판을 도끼로 쪼개버리고 전도관 간판을 단 것이다. 그 교회를 몽땅 돌아오게 하는 큰 전도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하여 조희성님은 너무도 기쁘고 신이 나서 밀실로 돌아오셨다. 조희성님이 밀실에 도착을 하시니 해와이긴자가 노기를 띤 얼굴로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저 좋아하는 음란죄를 진 저 놈의 새끼, 당장 이 밀실에서 내쫓아라!" 이 호통 소리를 듣고 조희성님은 기가 막혔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도하여 교회 하나를 몽땅 진리로 돌아오게 한 것이 왜 기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해와이긴자는 "저 좋아하는 음란죄를 진 저 놈의 새끼, 당장 내쫓으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고는 대성통곡을 하셨다. "사람으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시험과 연단을 다 통과해 왔지만 전도하여 하나님쪽으로 인도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좋아하는 음란죄가 되어 죽을죄가 된다면 정말 사람으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신 것이었다.

낙심하신 조희성님은 죽을 결심을 하시고야 말았다.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목매 죽을 끈을 찾았다. 바로 그때 영모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어 조희성님을 붙들고 통곡을 하시는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구느냐!"라고 하시면서 조희성님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시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영모님을 붙들고 우시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두 분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시다가 조희성님이 눈을 떠 보니 영모님은 간 곳이 없었다. 방문을 보니 잠긴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시어 영모님 형상으로 나타나시어 조희성님의 좌절하시는 마음을 잡아놓고 가신 것이다.

G. 승리하신 조희성님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부터 조희성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6개월간 더욱더 목숨을 건 투쟁을 다시 시작하셨다.

다시 새마음으로 완성자를 향하여 정진을 하고 있을 때다. 피곤한 몸으로 깊은 잠속에 빠져 계신 조희성님은 꿈결에 옆에 누가 있는 듯하여 손을 들어 만져 보았다. 그랬더니 여자의 머리가 만져졌다. 깜짝 놀라신 조희성님은 눈을 떠 보니 웬 여자가 조희성님의 팔을 베고 자고 있는 것이다. 순간 벌떡 일어나시어 여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여자의 뺨을 갈겨버렸다. 그 여자는 얼떨결에 뺨을 얻어맞고는 울면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망을 쳐 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해와이긴자께서 조희성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한 것임을 알았다. 그 여자는 이화여대 4년에 다니는 매우 아름답게 생긴 미인이었다. 결국 조희성님은 이와 같은 음란을 완벽하게 이기게 되신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최모가 오더니 이유도 없이 주먹을 날려 조희성님을 치는 것이다. 예고도 없이 당한 일이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더욱이 최모의 그 가냘픈 몸매는 조희성님의 우람한 주먹 한방이면 그대로 꺼꾸러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신 조희성님은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어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조희성님은 화도 안 나고 당신을 때린 최모를 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최모 속의 마귀는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니 최모는 돌아서서 막 달아나는 것이었다.

조희성님은 참으로 놀라운 경지까지 다다른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그 다음날은 1980년 10월 15일이었다. 바로 이날 "네가 이겼다"라는 말씀이 떨어졌다. 그토록 목표를 두고 정진하시던 이긴자가 아니던가. 이 말을 듣게 되면 날아갈 듯이 기뻐 뛰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음란죄에 떨어졌던 조희성님은 더 이상 좋아하는 음란죄에 떨어지지 않으셨다. 차분한 마음과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이 미동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희성님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기셨지요"라고 화답하셨더니 "또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때 또 조희성님은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겼나이다." 라고 화답하셨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때 또 조희성님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오시어 좌정하시니 하나님이 되셨지요"라고 답하셨다. 그랬더니 "네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뉘 죄든지 정하면 정하여지리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제는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하셨다.*

도덕경 56장 해설

言者不知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도덕경 해설

속인은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긴다. 도인은 돈보다는 먼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속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나, 도인은 인간과 모든 만물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사고방식을 갖는다. 속인은 나와 남을 다르게 보지만, 도인은 나와 남을 하나로 본다. 속인은 외부의 대상에 눈이 팔려 자기중심을 잃기 쉽고, 도인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이루는 데 항상 무게 중심을 둔다. 속인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밝히려 하나, 도인은 진실한 행법으로만 말한다. 속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지만, 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데 온갖 집중을 다 한다.

이를 보아 속인과 도인은 정반대의 성향을 띤다는 것을 대별하여 알 수 있다. 이 둘 중 누가 더 나으며, 더 행복한가? 두 말도 필요치 않고 도인이다. 속인의 삶은 화려하고 요란한 것 같지만, 어김없이 허무와 공허의 파도가 자신을 이내 삼켜 버린다. 도인의 삶은 수수하고 맑아 항상 마음의 고요와 평화 속에 자유자재하며 삶을 유유자적한다. 이 땅에 도인이 왜 귀하고 꼭 필요한가를 적나라하게 밝혀 주는 대목이다.

이 세상은 돈이 있는 자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여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참다운 성품의 고귀성은 뒷전이고, 돈의 유무가 인간존재의 존귀여부를 가리는 가치의 척도가 된다. 흔히 이런 세상을 수도인의 세계에서는 무도한 세상이라 말한다. 무도한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고매한 인간성을 알아주기보다는 돈과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대우하는 세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서방세계의 자본주의 관점이 오늘날 사회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터부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생활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인간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과거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시대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게 인간 사회발달과 행복증진에 관한 전문 연구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물질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성행하는 자본주의 사회 흐름과 시각으로 보면 도인의 정신세계는 별천지의 이상한 사람으로만 비친다. 마음밖의 물질이나 돈은 인간에게 사실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한다.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속인은 이런 진리를 모른다. 단지 인간이 돈이 좋다거나 물질이 갖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킬 때만이 느낌이 올 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단순히 돈과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자신 내면으로 받아들여 판단한다. 이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로 상대적 판단작용을 하게 되는 기분과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생명의 근본인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니 사람은 온갖 질병으로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고 대세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필요 충족 요건만 갖추면 인간의 기분과 감정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것인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도를 닦으면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고, 물질이 없어도 부족함을 못 느낀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든지 마음으로 기분과 감정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마음 다스리기가 능수능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대는 인구문제, 식량문제, 자원문제, 이상기후 등 각종 문제로 점점 살기가 버거워질 것이다. 마음과 정신보다는 돈과 물질에 우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다. 시대적으로는 경전에서 말하는 말법시대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말법의 시대란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마음보다는 몸을 더 챙기고, 생명보다는 돈과 물질에 더 탐닉하는 세상을 말한다.

"영웅호걸은 시대를 타고 난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진정한 영웅호걸은 수도를 통하여 마음과 정신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며 온갖 상황에도 그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무욕하고 무애하며 즐겁고 평안한 인생, 천수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영웅호걸로 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법시대(正法時代)에서 수도는 필수불가결한 충족 요건이지, 취사선택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세 흐름의 기회를 먼저 간파한 자가 성공 제일 요건을 선점하듯,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수도에 용맹정진하는 길만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참다운 수도자만이 과도기와 격변의 대 환란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영웅호걸이다.

知者不言(지자불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塞其兌(색기태): 향락으로부터 지키고

閉其門(폐기문): (외부로 향하는)그 마음의 문을 닫으면

挫其銳(좌기예): 그 예리함이 꺽이고

解其分(해기분): 그 얽힘으로부터 벗어나고

和其光(화기광): 그 빛(밝음)과 조화되고

同其塵(동기진): 그것이 티끌과 같아져

是謂玄同(시위현동): 이를 일컬어 현묘한 앎(경계)과 같아진다

故不可得而親(고불가득이친): 고로 이런 경계에 있는 사람은 친해질 수도 없고

不可得而疏(불가득이소): 이런 경계에 있는 사람과는 멀리할 수도 없으며

不可得而利(불가득이리): 이로움을 얻을 수도 없고

不可得而害(불가득이해): 해를 얻을 수도 없고

不可得而貴(불가득이귀): 귀하게 대할 수도 없고

不可得而賤(불가득이천): 천하게 대할 수도 없다

故爲天下貴(고위천하귀): 고로 이러한 행이 천하에서 고귀하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